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1. 7. 1.(목) 배포일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소	보도자료 PRESS RELEASE	감귤아열대연구소장 송인관 ☎ 760-7260	농업연구사 김현수 ☎ 760-7274
동영상(웹하드) :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후속자료 : 없음	

「속이 빨간 용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착수

- 새로운 아열대과수 적육계 용과,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 구명 및 착과량 설정 연구 -

- 제주지역에 적합한 아열대과수 도입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소득 창출에 나선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중)은 적육계 용과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 및 적정 착과량 설정 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용과는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 16 농가, 4.9ha에서 재배되고 있고, 그중 적육계 품종은 지난해 도입되어 현재 10 농가, 3.0ha에서 재배되고 있다.
 - 2000년 처음 용과 출하 시에는 특이한 모양과 소화촉진, 변비해소 등의 효과로 고급 과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다른 아열대과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주춤한 실정이다.
- 최근 고당도의 속이 빨간 용과, 적육계 용과가 주목받고 있다.
 - 적육계 용과는 대만에서 육성한 ‘대홍’이라는 품종으로 18~20 °Bx로 당도가 높고, 800g 내외의 대과로 과육에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는 기능성 식품이다.

- 지난 2019년 기후 온난화 대응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함덕농협)’로 적육계 용과가 선정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인공수분 시간대별 착과율 조사를 통한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 구명 △결과지 당 적정 착과량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
 - 용과의 개화 특성은 저녁 10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개화되며 이 시간대에 인공수분을 하지 않으면 착과 및 과실 비대 불량으로 상품성이 낮아진다. 이에 인공수분 시간대별 착과율 조사를 통한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를 구명한다.
 -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무게의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결과지 * 열매가 달리는 가지 당 적정 착과량 연구에 나선다.
- 연구가 마무리되면 신품종 적육계 용과의 안정 착과 및 적정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 김현수 농업연구사는 “적육계 용과의 재배기술 정립으로 고품질 용과 생산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후변화에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도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당도 '속 빨간 용과' 안정 생산 길 열리나

도농업기술원, 제주 적정 착과율 조사 등 연구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속이 빨간 적육계 용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농기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용과는 1999년에 도입돼 현재 16농가·4.9ha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 중 적육계 품종은 지난해 도입돼 현재 10농가·3.0ha에서 재배 중이다.

적육계 용과는 대만에서 육성한 '대홍'이라는 품종으로 18~20브릭스로 당도가 높고, 800g 내외의 대과로 과육에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기능성 식품이다.

제주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연구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적육계 용과(사진)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정 착과율 조사 등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필요한 실정이며, 농기원은 착과율 조사 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제주일보 3